

5th Story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Water to Wine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 5th Story -



하인 자자 쉬잇 쉬잇... 비밀을 한 가지 얘기해줄게요. 알았죠? 제가 방금 본 걸 아마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우리는 결혼식 파티 중이었어요. 전 그냥 친구들이랑 여기서 일하고 있었어요. 사실 전 여기 와 있는 사람들 잘 몰라요. 그런데 한창 파티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완전 희한한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하인 1 안녕~ 야~~ 포도주 엄청들 마시는데? 한 통이 금방 금방 없어지는데? 얼마나 남았는데?

하인 2 여기 한 통 밖에 없는데?

하인들 한 통? 진짜?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데~ 금새 동이 나겠어 어찌지?

하인 1 그러게... 어디 가서 방법 좀 찾아봐야겠어.

하인 2 누구든 도울 사람이 있다면 좋겠다.

하인 그랬다니까요. 파티는 아직 한창인데 벌써 포도주가 바닥이니 얼마나 떨어졌냐구요? 제대로 준비 안했다고 우리가 욕먹게 생겼으니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와줄 사람을 찾으러 여기저기 다녔는데 부엌에서 어떤 아줌마를 찾았어요.

이름이 마리아...라고 했어요.

하인 저기요~~ 제가 어떤 분에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희에게 문제가 좀 있어서요.

마리아 어떤 문제죠?

하인 엄... 포도주가 곧 바닥이 나게 생겼어요. 사실, 거의 다 마셨어요.

마리아 뭐라구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하인 사람들이 진짜 많이 왔잖아요, 그리고 워낙 좋은 분위기에 다들 즐겁게 마시다보니... 어떻게 해야 하죠? 신부가 진짜 화낼 텐데...

마리아 걱정 말아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떠오르기는 하는데... 아 그리고 제 이름은 마리아예요.

하인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만나서 반가워요.

마리아 예수야~ 날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예수님 물론이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마리아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겠니?



- 예수님 음... 어머니... 왜 이런 일을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건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 마리아 예수야, 나도 안단다. 하지만, 네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도움이 될 게야. 도와줄 수 있겠니?
- 예수님 알겠어요.
- 마리아 고마워요, 자자 여기. 두 분 이리 오세요. 저분이 하라시는대로 그대로만 하세요. 아셨죠?
- 하인들 엄... 네네 알겠습니다.
- 예수님 자. 저 뒤에 물통 6개 보이죠?
- 하인들 네... 근데...
- 예수님 한통에 75리터가 들어가는 물통이니까 지금 두 분은 가서 물로 가득 가득 채워주세요.
- 하인 1 잠깐만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왜 우리가 지금 물을 길어와야 하죠? 우리가... 포도주를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 예수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주세요. 포도주 걱정은 마시구요.
- 하인 1 하지만, 우리가 당장 필요한 건 포도주잖아요. 물이 아니구요.
- 예수님 알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드린 말씀은 다 알아들으셨죠?
- 하인들 네. 그거야 할 수 있죠.
- 예수님 서둘러요. 포도주 금방 떨어집니다.
- 하인 2 하지만...
- 하인 뭐 어찌겠어요? 우린 그냥 그 예수라는 분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리가 났는데 왜 우리가 저 큰 물통에 물을 부어야 하는건지, 그게 시간은 또 얼마나 오래 걸리는 일인데 엄한 일이나 계속해야 하는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그냥 했다고요.
- 하인 2 그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마리아 아줌마랑 예수 둘다 미쳐서 다 망쳐놓는다고까지 생각했다니깐요.
- 하인 1 정말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 하인 2 음... 전 그냥 아무 생각없이 물만 부었어요. 하지만 저 두 사람이 우리를 골탕 먹이는데도 모른다고도 생각했어요.



잔치책임자 잠깐...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포도주 좀 더 마시고 싶지 않으세요?
(네 네 네) 저기 그래 그래 자네~ 가서 포도주를 다 가져오게나~

하인 어... 아...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 걱정 말아요. 저와 함께 가요.

하인들 예수님, 우리가 다 채우긴 채웠어요.

예수님 잘 했어요. 수고했구요. 자 이제 저 물통들을 가져다드리세요.

하인 2 봐 봐 봐 내가 그랬지? 저 사람이 우릴 골탕 먹이고 있는 거라고~~
난 안 해 나 안 해~~ 이거 그냥 물이잖아 미쳤어?

예수님 누가 갈래요?

하인 1 제가 할게요.

하인 1 주인님 여기 있습니다

잔치 손님 으음~~~ 이거 진짜~~~~ 맛있는데? 파티에 내가 많이 가봤지만,
처음에만 좋은 포도주 내놔다가 사람들이 취하면 나쁜 포도주를
내놓고는 하는데 여긴 완전 반대구만. 진 좋은 포도주를 숨기고 있었네
그려...

어... 아... 네네 헤헤

신랑 와우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일이?

하인들 예수야, 고맙다.

마리아 네, 맞아요. 이 예수님이셨어요. 물통을 가득 채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요. 그것도 진짜 최고급 포도주로요. 다들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분에게는 뭔가 엄청난 힘이 있는 것만 같았답니다.